

전통 제조업에 AI·빅데이터 등 접목… LS, 디지털전환 속도

구자열 회장 디지털전환 지속 강조
스마트 팩토리·기술 등 발굴 확대
계열사 디지털 자동화 사업 강걸음
파트너십·오픈이노베이션 등 추진

LS그룹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 기업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을 그룹의 미래 준비 전략으로 정하고,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에 AI(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 에너지 기술을 접목하는데 한창이다.

구자열 LS그룹 회장과 구자는 LS엠트론 회장 등 주요 경영진들은 일찌감치 디지털 전환을 강조하며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구자열 회장은 2015년부터 임원세미나와 연구개발성과 공유회 등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글로벌 선진 기업들은 현재의 저성장 기조를 타개하고 지속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 열쇠로 디지털라이제이션을 꼽고, 이미 인공지능, IoT, 로봇 등 기하급수 기술(exponential technology) 확보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ABB, 지멘스 등 디지털 전환에 과감히 투자하고 집중하고 있는 글로벌 경쟁사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을 통해 LS도 디지털 역량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자는 LS엠트론 회장 역시 지주사



LS일렉트릭 관계자가 청주 스마트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LS

내 미래혁신단을 맡아 각 계열사별로 추진 중인 디지털 전환 과제를 촉진하고, 애자일 경영기법을 전파하는 등 LS그룹의 디지털 미래 전략을 이끌고 있다. 실제로 구자는 회장은 'LS 애자일 데모 데이'를 매년 개최해, 미래혁신단과 계열사들의 협력으로 일군 디지털 전환의 성과들을 임직원들 앞에 공개하고 있다.

각 계열사들도 IoT,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 고객들이 자사 제품을 사용하며 겪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와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LS전선은 최근 온라인 B2B 케이블 판매 시스템인 '원피'를 도

입했다. 원피는 디지털을 접목해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추진한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케이블 유통점이 온라인으로 케이블의 실시간 재고 파악과 견적 요청, 구매, 출하 확인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유통점이 LS전선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로 재고 파악부터 구매 및 출하까지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게 했다. 재고 확인을 1분만에 할 수 있게 됐고, 출하 상황도 바로 알 수 있다.

LS 일렉트릭은 지난 2월 LS글로벌로부터 물적 분할한 LS ITC를 인수하며 전력·자동화 사업에 대한 디지털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IT 역량 제고에 나섰다. LS ITC는 빅 데이터, IoT, 스마트 팩토리 등에 필요한 산업·IT 융합

서비스를 핵심 역량으로 보유한 IT 전문 기업이며, 이번 인수를 통해 LS EL ECTRIC의 전력·자동화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디지털 제품 및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주 사업장에 부품 공급부터 조립, 시험, 포장 등 전라인에 걸쳐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 스마트 공장도 운영 중이다. 저압기기 라인 38개 품목의 1일 생산량을 7500대 수준에서 2만 대로 확대했고, 에너지 사용량 역시 60% 이상 절감했다. 불량률도 글로벌 스마트 공장 수준인 6PPM으로 줄여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LS니꼬동제련은 온산제련소에 생산 전 과정을 통신으로 연결해 공정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스마트팩토리 시스템인 ODS를 추진 중이다. 세계 2위 생산량을 자랑하는 온산제련소를 생산 효율성과 안정성 강화는 물론 안전확보와 환경보호까지 아우른 글로벌 제련업계 최초의 제련소로 만든다는 목표다.

LS엠트론은 자율작업 트랙터인 'LS 스마트레인'과 원격관리 서비스 '아이트랙터'를 출시하며 농업 첨단화를 이끌고 있다. LS 스마트레온은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고 트랙터가 스스로 농경지에서 작업하는 첨단 트랙터로, 운전이 미숙한 초보 농민도 정밀한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돋는다. 원격으로 트랙터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사용자에게 필요한 유지 보수 내용을 전달하는 서비스인 아이트랙터도 제공하고 있다.

LPG 전문기업 E1은 다양한 안전환경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안전환경 포털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여수·인천·대산 기지 내에 작업자가 모바일 기기로도 작업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작업 별 안전조치 사항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정보도 편리하게 조회 가능하다.

또 E1은 설비 관련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 '설비정보 HUB' 구축을 추진하여 기지 내 빅데이터 기반을 조성하고, IoT, AI 등 다양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 기술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등 기술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스마트 플랜트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LS그룹 관계자는 "LS는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에 자동화·빅데이터·AI 기술 등을 활용해 획기적으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외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오픈 이노베이션 등 스마트 R&D 방식을 통해 디지털에 강한 LS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말했다.



KAI, 300조 규모 '우주 서비스 시장' 진출

항공영상분석社 메이사 지분 투자
위성영상 4차산업기술과 접목·활용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이 300조원 규모 우주 서비스 시장진출을 위한 '뉴스페이스 벤처체인' 구축에 나선다.

KAI는 국내 항공 영상 분석 전문업체 '메이사'의 지분 2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메이사는 2D로 촬영된 영상을 3D로 전환하는 '3D 리컨스트럭션(Reconstruction) 엔진'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 강소기업이다.

KAI는 지난 2월 '뉴스페이스 TF' 발족 이후 위성 영상 서비스 분야 진출을

검토했고, 국내 이미지 분석 기술을 선도하는 메이사와의 협력을 결정했다.

KAI는 현재 1차원적 판매에 머물러 있는 위성 영상 서비스를 4차산업 기술

과 접목해 고부가가치 우주 서비스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3D 리컨스트럭션 기술은 에어버스, 구글, MS 등 세계적 위성 이미지 서비스 기업들이 보유한 핵심기술로 해운, 농업, 산림 등 다양한 산업의 분석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드론 영상을 중심으로 국내 건설 분야의 실시간 공정률 측정, 시공 도면과의 오차 분석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이 기술이 위성에 적용되면 항구의

선박 이동량에 따른 물동량, 산림자원 및 병종해 정보, 곡물 작황, 유류 저장량 분석 등 다양한 산업으로 서비스 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KAI는 기대했다.

위성영상, 발사 서비스 등 우주 서비스 분야는 2040년 300조원 이상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했다.

KAI 관계자는 "이번 지분 인수는 항공 제조를 넘어 서비스 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위성 이미지 분석은 물론 메타버스 기반의 시뮬레이터 개발 등 기존사업과 시너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술을 고도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GS칼텍스, 친환경 '미래형 주유소' 공개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서 전시

GS칼텍스가 친환경 에너지 및 공유 모빌리티를 경험할 수 있는 미래형 주유소를 선보인다.

GS칼텍스는 8일부터 사흘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 미래형 주유소를 주제로 참가한다고 7일 밝혔다.

GS칼텍스는 이번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제주도와 협업해 미래형 주유소를 전시한다. 이 전시관에는 GS칼텍스의 미래형 주유소인 '에너지플러스 하브'를 모티브로 스마트시티의 기반이 되는 친환경 에너지와 공유 모빌리티를 담았다.

주유소 캐노피를 형상화한 전시관에 들어서면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사용

해 전기차, 자전거, 킥보드 등 공유 모빌리티를 충전하고 대여·반납하는 등 주유소가 친환경 모빌리티의 거점으로 활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이번 엑스포 전시를 통해 GS칼텍스 주유소의 미래 모습과 비전을 잘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며 "향후에도 제주도와 협업하여 미래형 주유소를 비롯한 스마트시티를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GS칼텍스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제주도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대규모 인재 채용 등 경쟁력 확보 '박차'

» 1면 'K-배터리 '리콜 악재''서 계속

생산능력 확대 속도 대응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 대응을 위해 인력 채용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오는 8일까지 하반기 계열사 신입사원 채용에 나섰다. 이번 신입사원 채용 규모는 세자릿수로 지난 상반기보다 더 큰 규모로 진행된다.

LG에너지솔루션도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11일부터 자동차전지개발 센터에서 R&D 학사 신입·경력 사원을

수시 채용 중이며, 자동차·소형전지개발센터에선 석·박사 신입사원을 모집 중이다. 삼성SDI도 9월 중 그룹 차원에서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한다.

배터리 3사가 인력 확보에 나선 건 사업이 커지는 속도에 비해서 인력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각 회사의 배터리 생산능력은 매년 2배 이상 늘어나는데, 대학을 졸업하는 관련 인재들의 숫자는 정해져 있어 증설한 현장에서 근무할 인원들이 부족하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해외 인재 확보에도 집중하고 있다. 김종현 대표는 최근 미국 현지에서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

/양성운 기자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가격 경쟁력을 따라잡기 힘든 건 사실이다"며 "국내 기업들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기술력 확보로 K-배터리의 산업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서라운드 사운드 'LG 엑스붐 360'

LG전자가 프리미엄 무선 스피커를 선보이며 무선 스피커 라인업을 확장한다.

LG전자는 7일 고성능 사운드와 동시에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까지 갖춘 무선 스피커 'LG 엑스붐 360(사진)'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LG 엑스붐 360은 이달 중 한국을 비롯해 북미·유럽 등 글로벌 주요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LG전자에 따르면 신제품은 독자 개발한 음향 반사판 구조를 적용해 애곡

을 줄인 소리를 360도 방향으로 균일하게 보내주는 무지향 사운드를 구현했다. 소비자는 제품이 놓인 공간 어느 위치에서나 최적의 사운드를 감상할 수 있다. /한창대 기자 cd1@

